척하면 그냥 알아버린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⑰ 심지법(心地法)

"여러분, 산승이 법을 설하는 것이 무슨 법을 설한다고 생각하는가? 심지법(心地法)을 설하는 것이니라. 범부(凡)에도 들어가고 성인(聖)에도 들어가며 깨끗한(淨) 데도 들어가고 더러운(穢)데도 들어가며 참된(眞) 것에도 들어가고 속(俗)된 것에도 들어가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진(眞)·속俗)·범(凡)·성(聖)이라 구분하여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속·범·성이라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속 ·범 ·성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 잡아 쓰면 그만이지 다시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런 것을 현묘한 뜻(玄旨)이라 하는 것이니라.

산승이 설하는 법은 천하 사람들이 설하는 것과 다르니라.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내 눈앞에 나와 각각 하나씩 몸을 나타내 법을 묻되 '화상에게 묻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즉시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노승이 안온하게 앉아 있는데 도를 닦는 어떤 이가 찾아와 서로 만날 때도 나는 다 알아차려 버린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산승의 보는 곳은 달라서 밖으로 범·성을 취하지 않으며 안으로 근본(마음)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보는 것이 철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그르침이 없기 때문이니라."

심지법문(心地法門)이란 마음을 깨친 경지를 드러내는 법문이라는 말이다. 〈심지관경〉, 〈능엄경〉, 〈범망경〉 등 여러 경전에도 심지법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듯이 부처님의 법문이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두가 심지법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수행을 통한 마음자리를 깨친 법문이란 뜻에서 쓰인 말이다.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以悟爲則) 확철대오하여 종통(宗通)을 얻은 법문이다. 선에서는 종통을 중요시한다. 상대적인 말에 설통(說通)이란 말도 있다. 이론적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교리적 혹은 선리적(禪理的) 설명을 잘 해도 설명이 깨달음 자체는 아닌 것이다. 마치 음식 맛을 육미(六味)로 설명을 해도 "달다 쓰다" 하는 것이 맛 자체는 아닌 것처럼.

이 심지법문은 차별의 경계에서 나눠지는 모든 상대적인 것을 불식시킨다고 임제는 말하고 있다. 마치 허공 자체가 어느 특정 소속이나 사방의 방향을 가질 수 없듯이 심지법문은 차별적 명상(名相)에 의해 한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범(凡)·성(聖)·진(眞)·속(俗)에 드나들지만 범·성·진·속이 아니라 한다. 범부라 해도 범부가 아니며 성인이라 해도 성인이 아니다. 진제(眞諦)도 아니고 속제(俗諦)의 경계도 아니라 했다. 사람들은 곧잘 진리(眞理) 혹은 도(道)에 대해 특정 관념을 세우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도이다,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분별의식이 일어나면서 객관대상을 개념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어떤 주장을 강력히 내세울 때 그냥 도그마(dogma)를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성을 바로 보지 못한 망상적 분별일 뿐인데도 그러한 언어적 습관이나 관념적인 분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법문에 계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을 이름으로 이해하고 모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자들의 잘못된 허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임제는 자신의 설법이 보통 사람들의 설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는 말은 개념을 만들어 조립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언어 이전에 직관의 통찰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까. 그리하여 그는 척하면 그냥 알아버린다 하였다. '눈이 부딪치는 데 도(道)가 있다' 는 목격이도존의(目擊而道存矣)라는 공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다.

또 심지수행(心地修行)이라 하여 마음에 갖춰진 불성을 계발하는 수행으로 정혜등지(定慧等持)를 닦는 것을 이르는 말도 있다. 〈육조단경〉이나 황벽의 〈전심법요〉에서 심지법문의 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단경에서는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을 심지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고, 법요에서는 말하기를 심지법문에서는 만법이 모두 마음을 의거하여 건립되는 것이라 하였다. 대지(大地)가 일체 종자를 싹 트게 해 자라게 하듯이 심지(心地)에서 모든 수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행(萬行)의 근원을 심지라 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



세상 속 경전읽기

⑰ 관심일법(觀心一法)

달마대사의 저서 모음으로 알려진 〈소실육문(少室六門)〉은 보리달마선사 선(禪)의 요점을 드러낸 글로서, 제1문(第一門) 심경송(心經頌)·제2문 파상론(破相論)·제3문 이종입(二種入)·제4문 안심법문(安心法門)·제5문 오성론(悟性論)·제6문 혈맥론(血脈論)의 육문(六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실육문〉의 소실(少室)은 달마대사가 머물렀던 숭산(嵩山)의 소실산(山) 또는 소실봉(峰)에서 유래한 것으로 달마를 지칭하는 별칭이다. 중국 허난성[河南省] 덩펑시[登封市] 북쪽에 있는 숭산(嵩山)은 중국 5대 명산[5악(岳)]의 하나이다. 숭산에 세 첨봉(尖峯)이 있는데 중간을 쥔지봉[준극봉(峻極峰)], 동쪽을 타이스봉[태실봉(太室峰)], 서쪽을 샤오스봉[소실봉(少室峰)]이라고 한다. 샤오스봉[少室峰] 북쪽 기슭에 있는 샤오린사[소림사(少林寺)]는 중국 선종(禪宗)의 초조 달마대사(達磨大師)가 9년간 면벽 좌선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소실육문〉에 실린 여섯 개의 저서는 당나라의 비교적 초기에 저술된 것들로, 전부 보리달마 친찬(親撰)이라는 증거는 없다. 다만 '제3문 이종입' 과 '제4문 안심법문' 의 수기본(手記本)이 돈황(敦煌)에서 발견되어 대영박물관과 북경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종입' 은 도선(道宣)이 지은 〈속고승전(續高僧傳)〉의 보리달마 전기에 제목 없이 같은 내용이 실려 있고, 정각(淨覺)이 지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도 소실육문본과 동일한 것이 실려 있다. 또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30에 담림(曇林)의 서문과 함께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菩提達磨略辨大乘入道四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따라서 이종입과 안심법문은 달마대사의 친찬일 것으로 여겨진다.

제2문 파상론(破相論)은 관심론(觀心論)이라고도 불리며, 북종선의 개조인 신수(神秀, ?~706)의 저술 '파상론(破相論)' 과 일치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신수가 속찬(續撰)한 것으로 추정된다. 2조 혜가(惠可, 481~593)가 달마대사와 주고받은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상론에서 "나무의 근원이 뿌리이듯이,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므로, 깨닫고자 하면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알고 수행하고,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존재를 깊이 통찰하면, 세상을 구성한 요소인 4대(大)와 나를 구성한 요소인 오온(五蘊)이 실체가 없다. 마음작용에 착한 일을 즐기는 정심[淨心, 맑은 마음]과 나쁜 일을 생각하는 염심[染心, 흐린 마음)이 조건 따라 번갈아 나타난다. 염심(흐린 마음)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으로, 이고득락[離苦得樂,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음]하게 되지만 염심(흐린 마음)으로 살면 범부중생이니 참나가 묻혀버린 삼계고해(三界苦海)에서 표류하게 된다.

중생 몸속의 금강불성(金剛佛性)이 태양 같이 밝으나 오온 번뇌에 덮여 병 속의 등불처럼 드러나지 못한다. 중생이 모두 불성[佛性, 각성(覺性)]을 갖추었으니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쳐[自覺覺他] 깨달음의 지혜가 분명해 자유로워야 한다. 염심의 무명운[無明雲.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고 정심의 불성일[佛性日, 불성의 태양]을 드러내면 깨달음을 근본으로 모든 공덕이 이루어지고 열반을 얻게 됨을 알아야한다.

모든 선한 일은 깨달음이 근본이니 깨달음의 뿌리에서 모든 공덕의 나무가 자라고 열반의 과실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살피면 가히 마음을 꿰뚫어 안다고 할 수 있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⑬ 닦음의 길 3 / 위빠사나 원리·실존적 의미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눈 오는 날엔 /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 마음과 마음끼리 만난다 / 그래서 눈 오는 날엔 / 사람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눈 오는 날엔 그래서 /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

눈 내리는 겨울이면 가끔 생각나는 이정하 시인의 〈눈 오는 날〉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다. 눈 내린 어느 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 중생이란 이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다. 경우야 조금 다르지만 싯다르타가 당시 유행하던 선정과 고행을 버린 이유도 수행과 일상, 몸과 마음이 따로 작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조금의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저 보기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토록 원하던 존재의 참 모습을 깨치게 된 것이다.

싯다르타는 위빠사나를 통해 깨침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행법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야 한다. 마치 물속에 담긴 수저를 제대로 보려면 물의 움직임이 없어야 하는 것과 같다. 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수저의 모양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평온해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정정(正定)은 위빠사나 수행인 정념(正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는 바로 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빠사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身)과 느낌(受), 생각(心), 생각의 대상(法)이다. 이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한다고 해서 위빠사나를 사념처관(四念處觀)이라 부르기도 한다. 먼저 신념처(身念處)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예컨대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가 나오고 내쉬면 들어가는 현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로 수념처(受念處)에서 '수(受)' 는 느낌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볼 때 받게 되는 좋다거나 싫다는 느낌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셋째로 심념처(心念處)는 마음 안에서 탐욕이나 성냄 등의 생각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여실히 관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념처(法念處)에서 법은 생각의 대상을 뜻한다. 연기나 삼법인, 사성제 등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관(觀)의 대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이다.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관찰하면 무상과 무아를 깨칠 수 있다는 것이 위빠사나의 원리다.

위빠사나는 실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곧 현재의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 오랫동안 몸과 입, 생각으로 행한 업(業)의 결과물이다. 평소 쉽게 화를 낸다거나, 욕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쌓인 좋지 않은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관찰하면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위빠사나는 그런 성찰의 힘을 기르는 수행이다.

싯다르타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지금까지의 수행을 멈추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선정을 한다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몸을 괴롭히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어리석음 또한 보였다. 그 순간 어리석음이 지혜로, 중생 싯다르타가 붓다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우리가 위빠사나에 주목하는 이유다.

원로 불교학자 강건기 교수는 어느 강연 마지막 시간에 "몸 있는 곳에 마음 있게 하라."는 말을 남겼다. 위빠사나가 싯다르타에게 가져다준 선물은 몸과 마음,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는 붓다의 삶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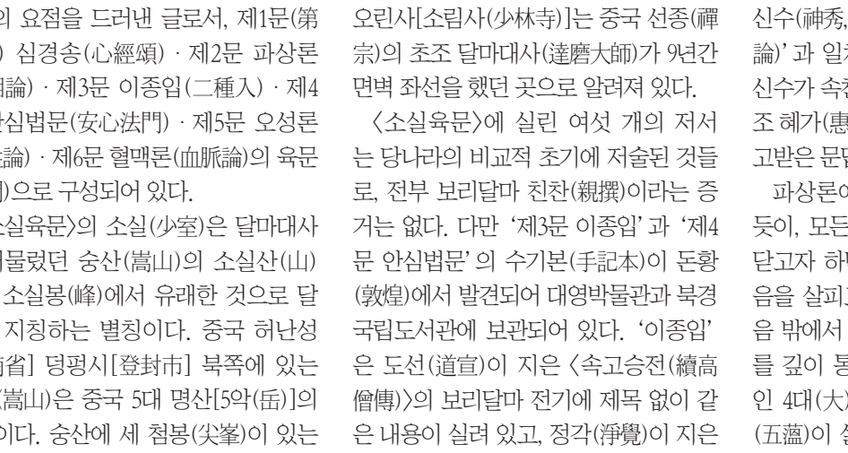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